

천연화장품 원료생산 탄력

남원시, 수이케이와 화장품원료생산시설 위·수탁운영 계약체결

남원시는 시 출연기관인 화장품산업지원센터(이사장 이환주 시장)는 24일 주)수이케이(대표 김경희)와 천연물화장품원료생산시설 위·수탁에 대한 운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원시 친환경화장품산업의 중심역할이 될 천연화장품 원료생산시설 구축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주)수이케이는 성남에 본사를 두고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등 주요 화장품제조업체에 원료를 납품하는 업체로, 제안 공모에서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되며, 약 1개월 동안 제반사항에 대한 현지심사와 협상을 마치고 위·수탁운영 계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남원시 천연물 화장품 원료생산시설은 노암산업단지내 국도비 포함 6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573㎡(475평) 규모로 구축, 남원·지리산권에 자생하는 자원식물을 이용해 천연물 화장품원료를 제조하는 시설로, 화장품원료의 추출과 농축, 정제·발효·건조·포장시스템을 갖춘 생산시설이다.

김경희 대표는 "시설은 2020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으로, 2020년 3월까



남원시는 시 출연기관인 화장품산업지원센터는 24일 주)수이케이와 천연물화장품원료생산시설 위·수탁에 대한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지 유통화장품원료협회(EFICI) 화장품원료 GMP 인증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환주 이사장은 "남원시가 화장품 원료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2011년부터 노암산

업단지에 화장품집적화단지를 조성해 CGMP 인증을 받은 우수화장품생산시설을 건립해 운영하고, 화장품산업지원센터를 통해 화장품 소재발굴과 연구개발, 기업지원에 이력어가고 있으며, 2022년 완공 예정인 화장품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면 40여개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진행

31일까지 분석 참여 대상자 모집

순창군이 미래 성장 산업인 발효분야의 대표 주력사업으로 '유용미생물은행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순창군민을 대상으로 장내 미생물 분석을 진행한다.

군에 따르면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대표이사 황숙주, 이하 진흥원)이 오는 31일까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장내미생물) 분석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는 주민등록상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사람이면 가능하고, 성별이나 연령에 제한은 없다.

이번에 참여하는 군민들은 장내 미생물 분석을 통해 개인별 건강 상태를 점검하여 현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진흥원은 참가자의 대변을 통해 향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령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구성의 차이 확인과,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제품 및 기능성 식품 개발에 기초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21세기는 대장 건강의 시대로, 서구화되고 불균형한 식습관으로 인해 변

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설사 및 염증성 장질환 등의 기능성 위장관 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순창군도 현재 투자선도지구내 유용미생물은행 건립을 추진중에 있고 오는 2020년부터 농축산·식품·인체 마이크로바이옴 표본을 수집하여 2023년까지 표본자원 5만 개와, 미생물자원 5만주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생물정보·마이크로바이옴 유전체 통합 DB를 구축하여 국내 산·학·연, 일반연구자와 관련 기관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제7733부대 3대대에서 인구교육 실시

남원시는 24일 제7733부대 3대대(남원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라북도의 지원으로

추진되었으며, 인구와 미래정책연구원의 강지역 강사를 초청해 인구절벽 시대 위기의식을 공감했다.

특히, 20대 젊은 청년층의 결혼·출

산 기피 인식변화와 고령관련 타파에 따른 가사분담 문화 등 가족친화 가치관 확립을 알리기 위해 추진했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인구감소로 인해 야기될 사회문제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N치즈 디저트교육 '호응'

창업 일자리 연계... 11월 21일까지 총 16회 운영

"맛도 좋고 한 손으로 부담없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치즈요리 딱 좋아요" 임실치즈테마파크 문화예술갤러리 체험관에서는 고소한 향기로 가득하다.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산업의 일환으로 맛있게 먹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임실N치즈를 활용한 디저트 교육이 지난달 18일을 시작으로 다음달 21일까지 16회에 걸쳐 운영중에 있다.

임실N치즈는 임실군의 자람이자 가공식품 분야에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군은 임실N치즈와 베이커리를 융합한 디저트 교육을 통하여 경험이 없는 분들도 전문성을 갖추고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돕고 신규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실N치즈를 활용한 디저트 교육은 치즈케익은 물론 치즈빵, 치즈3색호떡, 치즈한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시피를 가지고 18명의 교육생들이 이론과 실습을 병행중이다. 수강생들은 교육을 통해 쌓은 실력을 임실N치즈축제 기간동안 베이커리부스를 운영하며 유감없이 발휘한 바 있다.

또한 오는 10월 31일에 제14회 전북음식문화대전 요리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우리지역 특산물 임실치즈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심민 임실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취업과 창업을 위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특수성을 극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물론 일자리 창출로 연계돼 지역 경쟁력을 높일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임실N치즈를 활용한 디저트 교육이 한창이다.

지역자활센터 생산품 순회장터 운영

30일 순창군청 앞

순창군이 오는 30일 군청 앞 잔디밭에서 저소득층 일자리를 위한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사기진작 및 홍보 차원의 자활생산품 순회장터를 연다.

이번 순회장터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전북광역자활센터에서 주관해 도내 9개 시·군의 14개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제품들을 홍보·판매한다.

이날 장터에서는 천연비누, 가족제품 등 수공예품과 향초, 디퓨저, EM 비누 및 삼투, 건강빵, 작두콩차 등을 비롯 총 30여종의 품목이 판매된다.

품목들은 가정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 및 식품품들로, 품질도 우수하고 값도 저렴하게 판매한다. 순창지역자활센터에서도 이번엔 두부 및 각종 농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다.

매년 열리는 자활생산품 순회장터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생산품을 적극 홍보하고 매출액 증대 등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며, 유통망 형성을 통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판매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자활사업단이 공들여 만든 제품을 내놓은 만큼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군 우리마을 영화제

25일 작은별영화관에서 열려

임실군이 후원하고 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김정홍)가 주관하는 '제4회 임실군 우리마을 영화제'가 임실군 작은별영화관에서 25일날 개최된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우리마을 영화제'는 마을을 소재로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 영화를 상영하고 제작자, 배우 및 관객 모두가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영화제는 영화촬영에 관심있는 모든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6월에서 7월까지 우리지역을 소재로 한 시나리오 공모전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실을 사랑하는 내용을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등 촬영장비로 제작한 동영상 UCC대회를 지난달인 9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모집했다.

영화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우리마을 영화상영(2편), 청소년 UCC대회 수상작 상영(3편), 초청영화(2편) 등 연영에 제한 없이 모든 주민이 관람할 수 있는 상영작으로 준비했다.

김정홍 회장은 "임실 사람들이 직접 제작한 마을영화를 상영하고 한데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되고 품격 있는 영화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남원, 벼 재배 영세 고령농업인 지원

남원시가 2017년부터 시책사업으로 도입한 고령 영세규모 벼 재배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에서 올해는 483농가에 약2억원의 농작업비를 지급했다.

이 사업은 70세(1949년생) 이상 영세규모(0.1ha이상~0.5ha이하)의 농업인에게 벼 재배 농작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경영비를 절감하게 하고 그동안 각종 농업관련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규모 벼 재배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농업인으로 벼 재배면적이 0.1ha이상~0.5ha이하이며, 신청방법은 토지소재지 마을이장 확인을 거쳐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4월중에 신청하면 된다.

이를 기초로 시에서는 9월중에 읍면동을 통해 영농사실을 확인, 적격농가에 경운, 정지, 육포, 이앙, 수확, 건조 등 벼농사에 필요한 벼 농작업비의 일부(㎡당 150원)로 15만원~75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농업의 소득이 연간 654만 5070원을 초과하거나 타 작목 또는 축산업 경영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